가톨릭제주

연중 제15주일
2020년 7월 12일 〔제2247호〕
편집·발행 : 천주교 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회

생태영성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소공동체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복음 환호송)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631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8길 14 / http://www.dioceseejeju.or.kr / 사무처 729-9500 / 관리국 729-9502 / 복음화실 729-9501 / 선교사목위원회 729-9501 / 성서사도직 729-9503, FAX 729-9514 / 청소년사목위원회 729-9507, FAX 729-9516 / 가정사목위원회 729-9599, FAX 729-9598 / 참사랑가정상담소 725-8025 / 사회사목위원회 729-9511 / 성소위원회 729-9506

말 씀

뿌리지 않은 씨앗

한림본당
김형민(베드로) 신부

【꽃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핑'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핑이 씨앗을 심으면 마치 요술이라도 부린 듯이 어떤 꽃도 활짝 피고, 어떤 나무도 쑥쑥 자랐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님도 꽃 사랑이 지극하였는데, 꼬부랑 할아버지여서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후계자를 어떻게 뽑을까? 고민하다가 꽃으로 후계자를 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라 안 아이들은 모두 입궐하여 임금님께서 내린 특별한 꽃씨를 받으라. 임금님께서 한 해 동안 가장 정성을 다해 꽃씨를 가꾼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셨느니라."

이 소식에 모든 아이들이 궁궐로 몰려들어 꽃씨를 받아갔습니다. 핑도 꽃씨를 받아와 화분에 기름진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기름진 흙으로 갈아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도 화분에서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한 해가 다 지나고 아이들은 예쁜 꽃이 핀 화분을 안고 후계자가 될 꿈에 부풀어 궁궐로 몰려갔습니다. 핑도 어쩔 수 없이 빈 화분을 들고 갔습니다. 임금님은 아이들이 가져온 꽃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꽃들은 하나같이 예뻤지만 임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핑의 차례가 되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왔느냐?"

"임금님께서 주신 씨앗을 심고 날마다 물을 주고 더 좋은 화분에 더 좋은 흙을 담아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이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이 빈 화분이 제 정성입니다."

임금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너희들이 어디서 씨앗을 구했는지 나는 모를 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씨앗은 모두 익힌 씨앗이니 싹이 틀 리가 있겠느냐. 빈 화분에 진실을 담아 내 앞에 나타난 이 아이를 왕으로 삼으리라."】(그림동화책 '빈 화분')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독서의 말씀과 오늘 복음을 연결해서 바라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완수한다고 하셨는데, 복음에서 씨앗은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일찌감치 또는 그리 오래지 않아 먹혀 버리고, 말라 버리고, 숨 막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느님 말씀이라는 최고의 씨앗도 별수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하느님께서
>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 그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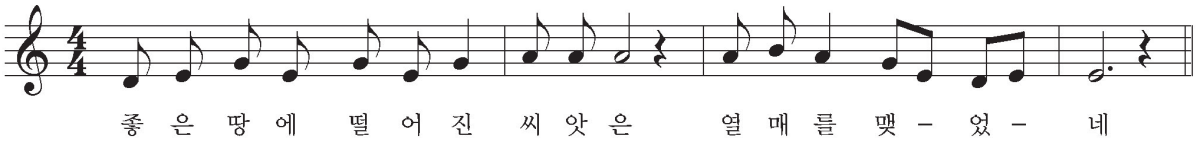
그러다가 문득 말씀의 씨앗이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 귀에는 싹이 돋아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감은 우리의 눈에는 '빈 화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핑이 담아낸 정성과 진실'처럼 씨앗은 하느님의 뜻과 방식으로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의 열매를 이미 맺어낸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 말씀의 실현에 의심을 품고 힘을 빼기보다는 내 화분에 말씀의 씨앗이 아닌 세상이 피워내고 맺어낸 화려하고 요란하기만 한 엉뚱한 꽃과 거짓된 열매를 바라보며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듣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답|송| 연중 제15주일



고백하오니

성소위원장 김경민(판크라시오) 신부

미사 때 거행하는 참회 예식의 첫째 양식인 고백 기도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죄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성찰의 강을 건너는 네 개의 디딤돌입니다.

첫째, 생각으로 지은 죄. 사도 바오로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 선한 것에 집중하라고 권고합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필리 4,8).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화를 냄으로써 다른 이의 신체에 직접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마태 5,22).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 다른 이를 실제로 건드리지 않더라도 간음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마태 5,27-28). 다른 이를 심판하고(마태 7,1),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도 우리를 죄로 이끄는 생각들입니다(마태 6,25-34 참조).

둘째, 말로 지은 죄. 내뱉은 말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혀가 불과 같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야고 3,5). 성경은 험담(2코린 12,20; 1티모 5,13; 로마 1,29), 중상(로마 1,30; 1티모 3,11), 욕(마태 5,22), 거짓말(콜로 3,9; 지혜 1,11; 집회 7,12-13), 자만(시편 5,6; 75,5; 1코린 5,6; 야고 4,16)과 같이 말로 짓는 수많은 죄를 조심하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위로 지은 죄.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주로 십계명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넷째, 의무를 소홀히 한 죄. 여기서 의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善)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야고 4,17). 심판 날에 우리는 이기심과 자만,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지 못한 선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고백 기도의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단지 죄스런 생각과 말, 욕망과 행위를 피하는 부정의 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덕행을 입어갑니다. 바오로는 콜로새인들에게 동정과 호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콜로 3,12-15).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죄를 피하기를 바라시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분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부자 청년의 죄가 그토록 비극적인 이유입니다(마태 19,16-22).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매우 인상적인 유다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나서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느님 나라의 '입국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그가 비록 고백 기도의 처음 세 영역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더 높은 선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남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마태 19,16-24). 미사 때 바치는 고백 기도의 이 부분은 부자 청년의 재산처럼 우리 삶에도 (꼭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정정합니다

「전례 탐구 생활」 연재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지난 주보(2020.07.05, 제2246호) "자비를 베푸소서"가 16회이며,
이번 주보(2020.07.12., 제2247호) "고백하오니"가 15회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불교의 극락과 그리스도교의 천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불교의 법(法 , 다르마)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다분합니다"(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1999년 부처님 오신 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

극락은 불교 신자들이 죽은 다음 가는 세계 가운데 하나로 해탈의 전 단계입니다. 부처의 나라(佛國土) 중에서 서쪽에 있는 극락은, 아주 훌륭한 스승들이 가르침을 주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곳이며, 깨달음을 얻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는 것, 곧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궁극 목적이므로 극락이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극락에 갔다고 해도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에, 극락을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천국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곧 하느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지상 생활을 마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마주 뵈며 그분과 온전히 결합할 때, 그는 온전히 하느님 나라에 들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무슨 뜻입니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전통과 신념에 충실하면서 대화는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꾸밈이나 편견 없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상대방의 종교 전통과 신념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교회의 선교 사명」, 56항).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극락에서 불교 신자들을 보살펴 주는 부처와 보살입니다. '아미타불'은 끝이 없는 생명, 또는 가리는 것이 없는 무한의 빛을 지닌 부처이고,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중생을 구원하고 교화를 돕는 보살입니다. 따라서 '부처'와 '보살'이란 칭호는 신(神)에 가까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한편 '나무'는 엎드려 경배하며 귀의(歸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단순히 어떤 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보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친숙한 종교 용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고유한 전통에 기초한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교의 요소를 무분별하게 취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교 행사에 참석할 때도 염불 또는 독경을 따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교 사찰을 방문하거나 불상 앞에서 예를 표해도 됩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자인 이웃들과 친구들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1997년 부처님 오신 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

고요한 분위기에서 명상을 하거나, 영적인 장소에서 머물려고, 고찰에 배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 전통을 체험하거나, 이웃 종교인들을 만나려고 사찰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불교 사찰을 방문할 때, 불교 신자들에 대한 애정과 법당과 불상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자 합장이나 예를 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가 그곳에 모셔진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하거나, 그 앞에서 복을 기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이사회
• 일시: 7.12(오늘) 오후 4시/ 가톨릭회관 2층 회의실
• 대상: 각 협의회장 또는 대리인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일시: 7.15(수) 오후 3시/ 골롬반 사제관(야외미사)
우천 시 취소합니다.
7.21(화) 저녁 7시 30분/ 서귀복자성당

새미소 성체신심미사
• 일시: 7.16(목) 밤 9시/ 삼위일체대성당
• 주관: 정난주, 서귀복자, 모슬포, 효돈, 화순본당

제83차 남성 꾸르실료
• 일시: 7.23(목)~7.26(주일)/ 이시돌회관
안정상 꾸르실료 행사에는 본당 간사께 참가신청을 하신 분만 입장하게 됩니다. 많은 영적, 물적 빨랑카 부탁드립니다.

상설고해소
• 일시: 7.13(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2층
• 고해사제: 김성환 신부(콜베, 예수회 디딤돌 공동체)

성소 모임 및 피정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 일시: 7.18(토) 오후 2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보건 및 복지에 관심 있는 젊은이
• 문의: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7.19(주일) 오후 2시/ 동광성당
• 대상: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만 35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721-9912, 010-3344-9413

후반기 사제 인사 발령

이름	계시던 곳	가시는 곳
정진환	화순	휴양
문창건	노형 보좌	화순
김영일	유학	노형 보좌
김학준	예수회	서문 보좌

부임일: 7월 15일(수)/ 김학준 신부는 9월 1일

7월 부모대강연회
〈부모-자녀 관계이야기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
일시: 7월 13일(월) 오전 10시~낮 12시 30분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제주시 연삼로 473,2층)
신청: 수시 문자접수 010-7249-1388, 선착순 40명(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바람)/ 참가비: 무료
문의: 725-7999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요셉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접수 및 문의: 7월 15일(수)까지, 732-7607, 010-4692-6716

제주청년! 우리 미니멀해져볼까(minimalism)
〈참자아로 깨어나기 영성수련 청년 1기〉
내용: 참다운 자신을 깨닫고 일상에서 힘 있는 나로 살아가기
진행: 김영근 신부/ 대상: 20~30대 중반 가톨릭 청년
기간: 7월 21일(오리엔테이션)~9월 29일, 매주 (화) 저녁 7시 30분~10시/ 참가비: 80,000원

〈카페에 앉아 쉬네(영화포럼)〉
주제: 지금 여기 머무름/ 큐레이터: 이정규
일시: 8월 1일(토) 시작, 매월 첫째 (토), 오후 6시~9시
대상: 20~30대 중반 가톨릭 청년/ 참가비: 5,000원

〈주최 및 문의〉 김영근 신부(예수회 내 청년사도직 담당) 010-5564-4287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좋은학교 연수
일시: 8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오후 9시
대상: Quality School에 관심 있는 학부모, 교사, 일반인
접수: 7월 20일부터 학교 홈페이지, 선착순, 043) 260-5076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도 겸합니다.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주제: 가족 간 선교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수기
형식: A4 10포인트 2~3장(200자 원고지 기준 20~30매)
접수: 8월 31일~9월 29일, 메일 또는 우편접수
문의: 02) 777-2013, www.clak.or.kr, 모바일앱[한국평협]

용수성지 6월 순례객 현황
미사봉헌 사제: 5명/ 순례객: 1,078명(제주 89명 포함)
안내 및 문의: 772-1252
순례객을 위한 미사: 8월 20일(목)부터 매주 (목) 오후 3시

- 감사합니다 -

1. 지난 달 장마철을 앞두고 영도건설 사장님(고영두 이냐시오)께서 기념성당 현관문 2곳을 교체 작업(3백만 원) 해주셨습니다.
2. 용수공소 신자들 10여 명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초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 랜 드 보 청 기
성당신자 보청기 최대 60% 할인
개업기념 사은품 증정, 청각장애인 및 어르신 할인, 연중무휴 방문 및 상담
대표이사 강 철 (오네시모)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 서사라사거리 → 구)신중버스정류소옆

마라 MARAH
100% 순수마유화장품
피부관리 1회 체험 9,900원
김 현 미 (세실리아)
제주시 인다5길 11-14(아라동)
T. 753-0852

홈페이지/쇼핑몰 제작 및 상담
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작업
소셜브릿지협동조합
나 현 홍 (시몬)
010-4223-5362
070-5033-5362
www.socialbridge.co.kr

가톨릭제주 광고모집
박스크기 : 3㎝×4㎝
1회 게재료 : 3만 원(월 1회 기준)
1년 게재료 : 30만 원(12회)
문의 : 선교사목위원회(729-9501)

제주중앙

주임신부 753-2274(현경훈 미카엘) 보좌신부 753-2270(최현철 안드레아)
사무실 753-2271 수녀원 753-2273 Fax.756-5533

❖ 꾸리아: 12일(오늘) 오전 11시 미사 후
❖ 성서 사십주간: 15일(수)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 예비신자 성지순례: 19일(주일) 오전 9시 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중앙성당)
중앙신협 11002-12-000414/ 농협 953-01-171513
제주은행 04-01-105454

동 문

주임신부 757-8868(이시우 안드레아) 보좌신부 757-8869(최낙웅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57-8866 수녀원 757-8867 Fax.756-5534

❖ 소공동체를 위한 미사: 14일(화) 저녁 7시 30분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17일(금) 저녁 7시 30분
❖ 하상바오로회, 안셀모회: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동문성당)
농협 961-01-090226

화 북

주임신부(양영수 베드로) 보좌신부(윤철우 요셉) 725-6004
사무실 756-6004 수녀원 755-6004 Fax.726-6003

❖ 꾸리아: 12일(오늘) 오전 9시 30분
❖ 성서 사십주간: 14일(화) 저녁미사 후
❖ 성소후원회 미사: 17일(금) 저녁 7시 30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화북성당)
농협 901016-55-000378/ 제주은행 01-01-243791

조 천

주임신부 784-6174(양요왕 요한)
사무실 784-6173 수녀원 784-6175 Fax.784-6688

❖ 꾸리아: 12일(오늘) 오전 9시
❖ 울뜨레야: 14일(화) 저녁미사 후
❖ 성소후원회: 17일(금) 저녁미사 후
❖ 주일학교 방학: 19일(주일)
❖ 위령회: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주일학교 부모회: 19일(주일) 청소년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조천성당)
농협 901044-51-026131

김 녕

주임신부 784-4330(조성호 라우렌시오)
사무실 783-4320 Fax.784-4320

❖ 꾸리아: 12일(오늘) 오후 6시
❖ 찾아가는 여름 캠프: 18일(토) 오전 10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김녕성당)
농협 901099-51-049374

동 광

주임신부 721-9910(고병수 요한) 보좌신부 721-9917(이건용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21-9911 수녀원 721-9912 Fax.721-9914

❖ 7월 전례, 미사안내, 주차안내, 본당청소: 탐라중 구역
❖ 주일미사 시간 변경 및 신설 안내
변경: 주일 저녁 7시 30분⇒오후 6시 청년미사
신설: 주일 밤 9시 30분
❖ 7월 입교 예비자 교리시간
수요반: 매주 (수) 저녁미사 후/ 주일반: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꾸리아: 12일(오늘) 오전 8시 30분
❖ 요셉회: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글라라회: 12일(오늘) 가족미사 후
❖ 청년회: 12일(오늘) 청년미사 후
❖ 성모회: 14일(화) 오전 11시
❖ 첫영성체 가정교리: 18일(토) 어린이미사 후
❖ 데레사회: 18일(토) 오전 11시
❖ 바오로회: 18일(토) 오후 6시 30분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4일(금) 저녁미사 후
❖ 제83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
이건용 신부, 송창훈(자캐오), 문재룡(미카엘)
고경근(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동광성당)
농협 351-7210-9911-53/ 농협 901022-51-000791
제주은행 33-01-004393/ 신협 131-005-493236

김 기 량

주임신부(양명현 토마스) 보좌신부(문종운 요한) 722-1224
사무실 722-8866 수녀원 722-1225 Fax.722-8867

❖ 평화의 모후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일시: 15일(수)부터, 매주 (수, 금) 오후 3시/ 성전
지향: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김기량 공동체를 위하여, 영적·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제1꾸리아: 12일(오늘) 오전 9시
❖ 제분과위원회: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청년회: 12일(오늘) 저녁미사 후
❖ 아치에스: 12일(오늘) 오후 1시
❖ 빈첸시오회: 14일(화) 저녁미사 후
❖ 생태 환경학교: 16일(목) 저녁 7시
❖ 첫영성체 가정교리: 17일(금) 저녁미사 후
❖ 여성단체협의회: 18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반석회, 사라회, 함께하는 여정: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 천주교 김기량성당)
농협 301-0100-426-51/ 제주 12-01-104143

광 양

주임신부 755-0700(이영조 바드리시오) 보좌신부 753-4496(김일영 프란치스코)
사무실 753-4498 수녀원 753-4497 Fax.756-5535

❖ 꾸리아: 12일(오늘) 오전 9시
❖ 소공동체협의회: 12일(오늘) 오전 11시 미사 후/ 교육관 2층
❖ 소공동체 모임: 16일(목) 저녁 8시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 여성연합회: 18일(토) 오전 11시/ 교육관 2층
❖ 제분과위원회: 19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교육관 2층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 천주교 광양교회)
농협 961-01-090578/ 제주은행 03-01-088496

서 문

주임신부 757-2979(서웅범 베드로)
사무실 753-2979 수녀원 753-3384 Fax.756-5536

❖ 예비신자 성지순례: 18일(토) 오전 9시
❖ 소공동체협의회: 19일(주일) 오전 9시 30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서문성당)
제주은행 04-01-083444/ 농협 957-17-003017

신제주

주임신부 (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보좌신부 (양용석 바오로)
사무실 742-4678 수녀원 742-4679 Fax.743-2727

❖ 46기 여정 입문교리: 12일(오늘) 오전 9시 30분
❖ 제분과협의회: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새 사제 첫 미사: 15일(수) 저녁 7시 30분
윤철우(요셉), 최낙웅(토마스 A), 이건용(토마스 A)
❖ 성서 사십주간: 17일(금) 저녁미사 후
❖ 소공동체협의회: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노형

주임신부 742-9121(김석주 베드로) 보좌신부 743-2407(문창건 루도비코)
사무실 742-9122 수녀원 742-9123 Fax.742-9124

❖ 견진성사: 12일(오늘) 교중미사
❖ 문창건 신부 송별식: 13일(월) 오후 6시
❖ 김영일 신부 환영식: 19일(주일) 교중미사
❖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미사: 17일(금) 저녁 7시 30분
❖ 성소자들을 위한 미사: 18일(토) 오전 6시 30분
❖ 성소후원회: 18일(토) 오전미사 후
❖ 평신도단체협의회: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세례예정자 단계별 입교예식
제1수련식: 19일(주일) 교중미사
제2수련식: 26일(주일) 교중미사

연동

주임신부 744-7812(최성환 광렬요한)
사무실 744-7811 수녀원 744-7813 Fax.743-8004

❖ 쁘레시디움 주보접기: 18일(토)/ 사도의 모후 Pr.
❖ 구역별 청소 안내: 18일(토)/ 부영 1구역, 연동 5구역
❖ 빈첸시오회: 19일(주일) 오전 10시
❖ 청소년사목위원회: 19일(주일) 학생청년미사 후
❖ 사목평의회: 25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연동성당)
농협 1079-17-000961/ 제주은행 39-01-002864

정난주

주임신부 712-2332(임문철 시몬)
집무실 743-0892 사무실 743-0893 Fax.712-0057

❖ 꾸리아: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모니카회: 12일(오늘) 가족미사 후
❖ 위령회: 13일(월) 저녁 7시 30분
❖ 성소후원회: 18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정난주성당)
농협 351-0893-0893-03

하귀

주임신부 713-9004(류충렬 대건안드레아)
사무실 713-9001 수녀원 713-9002 Fax.713-2106

❖ 꾸리아: 12일(오늘) 오전 9시
❖ 성서 그룹공부: 13일(월) 저녁 7시 30분
❖ 일상 안에서 영신수련 피정
일시: 13일(월)~17일(금), 오전 10시~11시 30분
❖ 소공동체협의회 :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하귀성당)
농협 901136-51-054764
새마을금고 6724-09-001730-1

애월

주임신부 (한상문 요한)
사무실 799-0026 Fax.799-0079

❖ 첫영성체 교리: 12일(오늘) 오전 9시
❖ 주일학교: 12일(오늘) 오전 9시 30분
❖ 성당나무 정리작업: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예비자 교리: 매주 (수)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애월성당)
신협 131-015-182355

한림

주임신부 796-2044(김형민 베드로)
사무실 796-4044 수녀원 796-3735 Fax.796-1044

❖ 소공동체협의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일시: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유아 세례: 12일(오늘) 오후 5시 30분
❖ 학생회 봉사활동 및 회의: 12일(오늘) 오후 5시 집결
❖ 후원회비 납부의 날: 19일(주일)
❖ 위령회, 제분과협의회: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재속프란치스코 한림 루케치오형제회
일시: 19일(주일) 오후 2시
❖ 청소년사목위원회: 19일(주일) 청소년가족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한림성당)
농협 901060-51-038761

금악

주임신부 796-4194(이어돈 미카엘)
사무실 796-4188 Fax.796-4196

❖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 17일(금) 오후 2시/ 교육관
❖ 루케치오형제회: 19일(주일) 오후 2시/ 한림성당 교육관
❖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활동회원 및 후원회원 모집
어려움 가운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빈첸시오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 강석진 다니엘(회장)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제주교구 금악성당)
신협 131-005-426257

신창

주임신부 772-4045(정필종 도미니코)
사무실 773-1044 수녀원 772-3044 Fax.772-4044

❖ 안나회: 12일(오늘) 오전 10시 미사 후
❖ 68주년 본당의 날 기념행사 평가회
일시: 19일(주일) 오전 10시 미사 후/ 데레사회관
대상: 사목위원, 신심단체장, 각 공소 회장
평가회 후 회식이 있습니다.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신창성당)
농협 901077-51-016013

고산

주임신부 773-0040(김지성 바오로)
사무실 773-2004 수녀원 773-0004 Fax.773-0140

❖ 요셉회, 하상바오로회: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울뜨레아: 17일(금) 저녁미사 후
❖ 로사회: 19일(주일)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고산성당)
농협 901088-51-031311

모슬포
주임신부 794-2076(이승협 다니엘)
사무실 794-2074 수녀원 794-2072 Fax.794-0409

❖ 꾸리아: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크리스토폴회: 12일(오늘) 오후 6시
❖ 새미소 성체신심미사: 16일(목) 저녁 8시 20분 출발
❖ 이승협 신부 영명 축일 축하식: 19일(주일) 교중미사 중
❖ 대정성지 환경정비: 19일(주일) 오후 2시
❖ 사목평의회: 23일(목) 저녁 7시
❖ 성소후원회: 24일(금) 저녁미사 후
❖ 예비자 모집: 7월~8월 중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모슬포성당)
농협 903014-51-041223

화순
주임신부 794-0484(정진환 대건안드레아)
사무실 794-0483 Fax.794-0481

❖ 정진환 신부 송별미사: 12일(오늘) 오전 10시 30분
❖ 정진환 신부와 공동체를 위한 위한 묵주기도
일시: 매일 오후 6시 30분/ 성전
저녁미사가 있는 날은 미사 후 기도를 바칩니다.
❖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거리 두고 앉기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화순성당)
신협 131-019-523843

중문
주임신부 738-6124(김선용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38-6123 수녀원 738-6125 Fax.738-6122

❖ 성심회, 골롬바회: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성서 사십주간: 13일(월) 저녁 7시
❖ 견진 교리(4): 15일(수) 저녁미사 후
❖ 성소후원회, 해설단회의: 16일(목) 저녁 7시
❖ 사목평의회: 18일(토) 오후 6시
❖ 제83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 심재관(요한)
❖ 교무금 계좌번호
농협 903812-51-011539(천주교제주교구 중문성당)
신협 131-005-421512(천주교 중문성당)

서귀포
주임신부 732-3444(부영호 대건안드레아)
사무실 762-3444 수녀원 733-3444 Fax.733-5551

❖ 펠릭스회, 골롬바회, 중고등부 학부모회, 꾸리아
일시: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모임, 전례위원회
일시: 14일(화) 저녁미사 후
❖ 6월 28일 입교 예비신자 교리반
일시: (주일) 오전 9시, (수)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서귀포성당)
농협 977-01-058427/ 국민 702-25-0005-756

서귀복자
주임신부(강형민 다니엘) 보좌신부(라치현 다비드) 733-5525
사무실 733-5523 수녀원 733-5524 Fax.733-5552

❖ 본당 50주년 기념미사: 12일(오늘)
주교님과 함께하는 미사: 교중미사
첫영성체 성경 수여식: 교중미사 중
❖ 성소후원회: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유아실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5일(수) 저녁미사 후
❖ 사목평의회: 17일(금) 저녁미사 후
❖ 예비자 환영식: 28일(화) 저녁미사 후
❖ 견진성사: 10월 4일(주일) 교중미사 중
교리 신청: 7월 19일(주일)까지
교리 기간 : 7월 22일(수)~9월 30일(수),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서귀복자성당)
농협 971-01-132992

효돈
주임신부 767-2353(현문권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67-2355 수녀원 767-2358 Fax.767-0156

❖ 꾸리아: 12일(오늘) 오전 11시 미사 후
❖ 새미소 성체신심미사: 16일(목) 저녁 7시 40분 출발
출발지: 천지합기도 앞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아치에스: 19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예비자 모집 선포식: 8월 15일(토)까지
예비자 환영식: 8월 16일(주일) 교중미사 중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효돈성당)
우체국 510214-01-000400

남원
주임신부 764-6300(김영태 베네딕토)
사무실 764-1712 Fax.764-6100

❖ 꾸리아: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구역모임 : 16일(목) 각 구역별
❖ 하상바오로회, 성모회, 안나회: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남원성당)
농협 903079-51-064753

표선
주임신부 787-4513(남승택 가브리엘)
사무실 787-0173 수녀원 787-4516 Fax.787-4514

❖ 첫영성체 교리: 12일(오늘) 오전 9시
❖ 꾸리아: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예비자 교리: 12일(오늘) 오후 6시
❖ 견진 교리: 14일(화) 저녁미사 후
❖ 견진성사, 생명장학금 수여식(10명)
일시: 19일(주일) 교중미사 중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제주교구 표선성당)
농협 903080-51-086934

성산포
주임신부 782-3060(양창조 믹도니오)
사무실 782-0500 수녀원 782-0528 Fax.784-7799

❖ 소나무 전지작업: 6일(월)~18일(토) 오전 중
❖ 김기량 순교 기념관 신립: 12일(오늘) 매 미사 중
❖ 꾸리아: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 빈첸시오회: 18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성산포성당)
수협 877-61-010207/ 농협 903091-51-122324
제주 40-01-077280